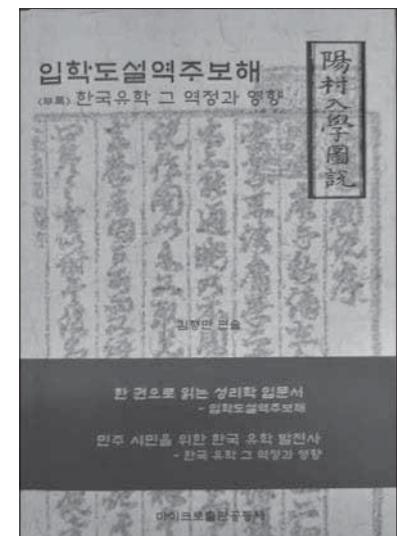


양촌 권근의 입학도설을 역주 보해한『입학도설역주보해』발간

양촌(陽村) 권근(權近)의『입학도설入學圖說』을 역주 보해한『입학도설역주보해』가 2020년 6월 30일 발간되었다. 총 1052페이지이다. 역주는 목포의 고전연구가 도하(度夏) 김형만(金炯萬) 선생이다. 도하 선생은 양촌의 입학도설을 역주 보해하면서 부록으로 「한국유학 그 역정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유학의 발전사를 정리하기도 했다. 대단한 정성과 공력이 아닐 수 없다. 도하 선생은 이 시대의 유학은 유교를 철학으로 연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시대정신에 걸맞는 통번달권(通變達權)을 구현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백성이 나라의 주인 되는 노릇을 당당히 하고 새롭고 알찬 민주국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오민의식(五民意識)' 즉 민주(民主)의식, 민초(民草)의식, 민수(民水)의식, 민선(民先)의식, 민본(民本)의식을 제안한다. 도하 선생은 지난 20여 년 동안 목포문화원에서 동양고전 강독을 지도하면서『목포풍아집』,『초정집』,『자산록』,『면파우고』 등 10여 권의 향토 고전문집을 번역한 바 있다.『입학도설역주보해』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어떻게 출간까지 하게 되었는지 그동기 등에 대해 도하 선생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편집자주)



들에게 질정을 구하려 하였으나 주위에 들켜서 알려지는 바람에 200권을 발간하기에 이르러 등 떠밀리고 일이 커져 동학들의 주선으로 출간기념회까지 갖기로 이르렀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먼저『입학도설入學圖說』은 양촌 권근(1352, 공민왕 1~1409, 태종 9)이 전라북도 익산에 유배되었을 때 성리학에 처음 입문한 학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40개의 도해(圖解)와 도설(圖說) 등을 붙여 놓는 것으로 한국유학에 있어 도설(圖說)의 비조(鼻祖)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초기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의 학문 및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저술이다. 이 입학도설은 퇴계 이황을 비롯한 조선 성리학의 리기심성론(理氣心性論)은 물론 조선 유학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일본에까지 전해져 간행됨으로써 일본의 유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역주자가 그 원전을 국역하며 저자 양촌

의 설에 대해 그 출처를 상세히 밝혀 주석과 보해(補解)를 달아 원문과 해석을 더하고 성리학 전반에 걸친 논점들을 46개 항목에 걸쳐 보설(補說)을 붙여 놓음으로써 이 한 권의『입학도설역주보해』가 성리학에 뜻을 둔 학자들의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보설(補說)에서는 경세(經世) 실천 유학에 중점을 두어 논의함으로써 종래 성리학(주자학)의 궁리(窮理) 사변적(思辨的) 인 병폐를 자제해 현세적 실천적 인본주의(人本主義) 유학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민생에 활용력을 불어넣어 나리를 틀튼하고 굳건하게 하는 길을 제시해 보려 하였다.

『한국유학 그 역정과 방향』은『입학도설역주보해』와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 한 편의 한국유학 발전사라 할 수 있을 것이나 합본을 위하여 부득이 부록의 형식으로 취한 것일 뿐이다. 한국유학은 우리의 고유사상·신앙 및 불교·도교 등 외래사상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아 왔으며 한국유학 특히 조선성리학의 특질은 무엇인가.

이 땅에 유학이 유입된 이후 유·불·도 삼교(三教)가 우리의 고유사상과 융합·회통하며 각각의 장점을 드러내고 상호 보완하며 국가를 경영하고 민족을 지도하던 것이 고려말 성리학이 유입되면서부터는 성리학 자체에 내재한 배타적인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의 고유사상 및 도교 불교 등을 이단 사설 미신으로 몰아세워 비판 배척 말살하며 독존적으로 사상계를 지배해 갔다. 조선은 유교 입국(立國)을 국시(國是)로 하였으나 초기의 경세적 실천적 유학은 조광조의 치지주의(至治主義)를 고비로 어느덧 중엽에 들어서며 공소(空疏)한 이론적 사변(思辨) 유학으로 흘러 문약(文弱)으로 치닫다가 종국에는 유학의 본령이 경국제민(經國濟民)에 있음을 망각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며 밀려드는 외세에 힘 없이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리학 자체가 국가의 지도이념에 부적합하거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도층 사대부들이 공리공론에 매몰되어 경세 이용 후생의 실천 유학에서 멀어져 가는 한편 선비들은 원기(元氣)를 잃고 독존적으로 학문 사상계를 지배하던 교조적인 주자학은 자정 능력을 잃어 탐욕을 앞세워 당쟁에 골몰하며 학문마저 권력의 도구로 삼고 기득권을 향유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리기심성(理氣心性)을 논변 하던 가도학자(假道學者)들의 위선과 허학(虛學)이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에서 여러 학자의 설을 끌어와 이 책을 편술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유학 그 역정과 방향』은 먼저 유학이 유입되기 이전 우리 민족의 원시 사상의 원형은 어떠했으며 한민족의 원류와 우리 민족의 성격은 어떠했는가. 자주적인 유학의 수용이 어느 때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탐색해 보았다.

이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각 시대별로 유학의 전개와 그 특징 우리의 고유 사상과 불교 도교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유교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특히 성리학이 수용된 이후 조선의 학계 사상계는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 사상의 발전 전개에 따른 국가와 국민 특히 서민 대중들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주자학이 배타적 교조적인 색채를 띠며 학문 사상계를 지배하는 데 반하여 반주학적 학풍이 일어나고 양명학의 유입과 배척, 실학파의 출현, 서학의 전래, 동학의 발생 등에 따라 유학계는 어떻게 대처

하며 서민 대중을 지도하고 민생과 국가의 경영에 임하였는가를 구명해 보려 했다.

이러한 시도는 유학(널리 한국사상)이 걸어온 역정을 바탕으로 유학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 이 있다 하겠다.

위정자들의 무능과 탐학으로 인한 고통은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땅의 민족들은 이루 다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기만과 우롱, 압박과 좌취에도 불구하고 꽃같이 역사를 지탱해오며 백성이 주인인 민족의 나라를 이루어냈다.

이제 인본주의의 유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의 주인 되는 노릇을 당당히 해나가며 더욱 새롭고 알찬 민주국가를 이루어가기 위해 '오민의식(五民意識)' 즉 민주(民主)의식, 민초(民草)의식, 민수(民水)의식, 민선(民先)의식, 민본(民本)의식을 제언해 보았다.

국가를 경영하는 현실정치론으로서의 유학은 이미 법가(法家) 도가(道家) 등의 사상을 끌어안아 스스로 외연을 넓히며 학문과 사상을 아우르고 정치를 담당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에 걸맞는 시중지도(時中之道)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인근 학문 사상과의 융합을 통해 현세적 실천적 인본주의의 유학의 정체성을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이다.

목포 유생(儒生) 도하(度夏) 김형만

10여 년 전 동문 사우(師友)들과 유가 경전을 강독할 때 양촌 권근의 입학도설을 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양촌의 학문과 사상 및 성리학, 그리고 더 나아가 특히 양촌의 도설(圖說)이 조선시대 성리학에 끼친 영향을 구명함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대강을 정리해 보는 계기로 삼아보려 한 것이 이를 역주하는 데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최고는 이미 10여 년 전에 이루어졌으나 이제야 교정을 거쳐 50여 권을 자비로 출간하여 동학 선비

“이 배는 대한의 배요, 이 땅은 대한의 땅입니다”

130년전 부산, 영국 처녀 Liz와 죽우竹友 권순도權順度의 러브 스토리

〈리즈 헌터(LIZ HUNTER)〉라는 독립영화(2004년, 감독 허종식, 43분)에 이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권순도(權順度, 1870~1934, 1.13)는 양산 대석리(海雲里 117) 출신으로 23세에 부산으로 나와서 조량동 부산해관(세관)의 영국인 관장인 조나단 헌터의 집(현 부산 중부경찰서 부근)에서 서생 겸 정원사로 근무하다가 그의 딸 리즈헌터(1875~?)와의 로맨스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극중 등장하는 일본여인, 중국여자는 아마 재미를 위한 설정처럼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WDN2K2h7b9I>)

권순도는 1907년 면암 최의현의 유해가 부산에 도착하자 그의 시신을 불잡고 통곡하며 '이배는 대한의 배요. 이땅은 대한의 땅입니다'라며 했다. 그의 독립 애국사상이 드러나 보이는 장면이다.

그래서 1910년 한일병합이 가까워오자 모든 것을 접고 인근에 있는 고향 양산군 상북면 대석리(집터)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면서, 고향에 의총단(義忠壇)이라는 바위를 만들고 최의현 선생의 뜻을 기리는 글, 춘추대의(春秋大義), 면암(勉庵) 최선생(崔先生), 일월고종(日月高忠)을 새기고 시(詩)도 썼다.

그리고 마을에는 〈세계인 환영비〉 건립, 〈제일강산〉 글씨 각자, 〈가흥정(鷺虹亭)〉 공동건립등을 하고 〈양산공립학교〉 설립보조등 선행을 하다가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에 대한 흔적은 이것 뿐이다. 후일 권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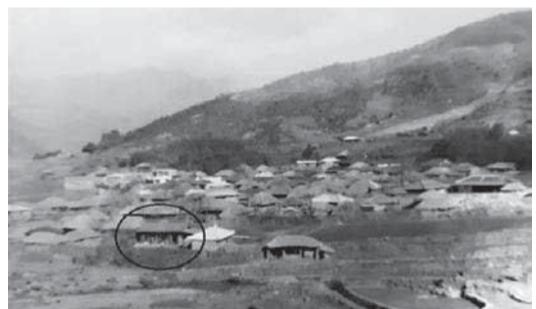


도의 막내 손녀인 권갑일(權甲一, 1924~2001)로부터 '순도 할아버지는 체격이 크고 똑똑하고 인물이 출중했으며, 영국식 트렌치코트를 즐겨입고 여성들을 잘 배려하는 신사적인 분'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그녀의 손자 박성호(1974년생, 부산 수영구 광안1동·부경대 토의강사)가 전해들었다고 한다.

구한말 1887년 조선실록 기록에 부산 해관(稅關), 부세무사 하문더(何文德)를 호조참의(現 재무부 차관보)로 기자(嘉尚, 예우상 평정)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여기서 하문더이 바로 조나단 헌터이고 리즈헌터의 부친이다. 하문더는 중국식 이름으로 허원띠(현터)인 것이다. 조선은 독일인 고문 웨렌도르프의 전으로 세관을 만들고 외국인을 영입하여 세금을 걷게했다. 당시 인천에 있던 헌터는 1888년 부산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마 1887년 겨울에 온 것 같다. 당시 부인과 4~5 정도의 딸과 함께 왔고 호주인 선교사도 이때 데리고 와서 부산에서 활동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2년전 거문도(전남, 여수)에 영국군이 23개월 간 주둔하다가 갔는데 절벽으로 사망한 6명의 무덤이 있다. 그 뒤 들어온 러시아군에 의해 신사적이고 우호적이어서 주민들과의 로맨스까지 있다. 짚은 무당을 사랑한 영국 수병이 헤엄쳐서 그녀를 찾아가다가 죽었다는 전설이다. 영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런던에서 헌터를 만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10년간(1888~1898) 근무후 본의 아니게 딸 리즈헌터 문제로 한국을 떠나 중국 황주(黃州) 세관으로 갔다가 홍콩에 거주하다가 1901년 런던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좌천동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출신 독립운동가 장건상(張建相, 1882~1974)이 1908년 미국유학을 떠날 때 게임의 추천장을 가지고 연해주와 시베리아,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런던에서 헌터를 만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는 부산 최초로 항구 매립사업을 하였다. 고종으로부터 1000냥(요즘 2억원 정도)을 받아서 청나라 사람 설계로 용미산을 까아서 항구를 조성하였다.

그는 10년간(1888~1898) 근무후 본의 아니게 딸 리즈헌터 문제로 한국을 떠나 중국 황주(黃州) 세관으로 갔다가 홍콩에 거주하다가 1901년 런던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좌천동으로 이주하여 재산을 모은다. 그리고 독립자금도 대주고 '상무사(商務社, 부산상공회의소 격)'에서 인원을 모아서 최의현 선생 장례식을 주관하고 육영사업등을 하다가 1908년 나라가 기울자 신문에 자신의 재산을 공매한다고 하고 이를 처분해가지고 양산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은둔한다.

그리고 고향마을에 큰집(330평)을 짓고, 최의현 바위, 제일강산 바위와 가흥정 건립, 세계인 환영비 등을 만들어 흔적을 남긴다. 아마 영국 스타일의 신사와 같은 행실로 양산군수가 오면 턱시도 차림으로 맞고 대석리 명승지에 학생들이 소풍을 오면 땅을 만들어 돌리고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상해임시경부, 백산상회등과도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독립운동은 비밀이 많아 묻혀져 있을 수도 있다.



1998년 당시 헌터의 관사에는 부인과 딸 그리고 조선인 가정부가 있었으나 잡일과 한국어 공부등에 남자가 필요하여 채용한 것이 권순도인데 그는 별좌(6급, 별정직)인 권의경(權義敬)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당시는 그저 시골 농부였을 것이다. 다만 서양 문물에 호기심이 있어서 영어 몇 마디는 배웠고 미남에다가 신수가 좋고 헌터 부인이 짐짓 던져는 지갑에도 손을 안대고 성실했다고 한다. 특히 헌터의 말(馬)을 관리하고 그 딸 리즈가 말을 탈때 도와주고 언어도 서로 교환하면서 가까워진다. 영화에는 리즈가 빼온(passion)이란 단어를 밝음하라며 하는 것은 한참 사춘기의 리즈가 먼 이국땅에서 10년 가까이 살다보니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권순도는 큰 키에 호남자로 알려져 있다.

당시 23세의 권순도는 집에 부인이 있었다고 한다. 13세에 조혼하여 아이도 있었다. 조나단 헌터는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권종으로 권순도를 쏜다고 난리를 피고 이를 딸과 부인이 말리는 사태가 일어나자 권순도는 리즈헌터를 조선 선비로 변장시키고는 고향 양산으로 같이 도피한다. 파란 눈의 이국 처녀가 나타나니 마을에서는 난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부인이 있는 양산집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알길이 없으나 당시라면 가능도 하였을 것이다.

이후 조나단 헌터가 관가에 고발하고 결국 곧 체포되어 부산감옥으로 암송되고 조나단은 본사에 청원하여 중국 황주, 홍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떠나고 만다. 여기서 영화에서는 아쉬운 차별로 마무리 되지만, 후에 조나단 헌터가 권순도에게 임막을 겸 연민의 정으로 부산 영도의 땅을 많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후 홍콩에서 리즈헌터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몇 년간 리즈와 권순도는 서신을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누고 리즈가 아들의 사진과 상당한 금전을 보내와서 권순도는 부산 중구 동광동 3가에 「권순도상점」을 열고 포목점 등 외국 물건을 취급하여 재산을 모은다. 그리고 독립자금도 대주고 '상무사(商務社, 부산상공회의소 격)'에서 인원을 모아서 최의현 선생 장례식을 주관하고 육영사업등을 하다가 1908년 나라가 기울자 신문에 자신의 재산을 공매한다고 하고 이를 처분해가지고 양산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은둔한다.

그리고 고향마을에 큰집(330평)을 짓고, 최의현 바위, 제일강산 바위와 가흥정 건립, 세계인 환영비 등을 만들어 흔적을 남긴다. 아마 영국 스타일의 신사와 같은 행실로 양산군수가 오면 턱시도 차림으로 맞고 대석리 명승지에 학생들이 소풍을 오면 땅을 만들어 돌리고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상해임시경부, 백산상회등과도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독립운동은 비밀이 많아 묻혀져 있을 수도 있다.



홍콩 교 다리 하천의 제일강산과 의총단 바위. 제일강산 바위는 대석(大理石)의 성장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영국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그는 1899년 생으로 추정되고 그러면 1945년에는 46세이다. 그가 영국 공군장교로 2차 대전에 참전했다고 하니 그 나라이면 영광과 이상이다.

그가 1945년 해방후 하와이 교민회에 자축연에 참석하여 '나의 어머니는 영국인이고 아버지는 부산사람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생전에 그리워했다.'라고 하고 후에 곧 부산에 와서 권순도의 손자를 만나려고 했으나 폐결핵이라 그냥 갔다고 한다.

구나 권순도의 손자 네명중 두명은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이라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외증손자 박성호가 호주 유학 시절에 영국 교수를 통하여 영국재향군인회에 문의한 결과 그 권순도의 영국인 아들은 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 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리즈 헌터가 홍콩에 머문 것은 2~3년 남짓이고 이후 영국 귀국후 부친 조나단